

'내고장 광양愛 주소갖기' 범시민운동 편다

광양시·시민단체 공동대응 협약 체결 인구 늘리기 54개 사업 2000억 투입

연말에 늘어났던 광양 인구가 연초에 다시 줄어들자 광양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6750명(남 8만1365명, 여 7만5385명)으로 지난 10년간 연말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연초에는 줄임과 취업, 이사 시기 등이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광양시는 인구 정체 현상과 유출 문제를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범시민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내고장 광양愛(애) 주소 갖기' 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범시민운동 추진에 앞서 광양시는 인구 위기 해법을 찾고자 광양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과 3차례 실무 간담회를 열어 인구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단계별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 간담회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 시점에 맞춰 참여 기관·시민단체 간 인구문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시민 대토론회 개최, 캠페인 등 인구 지키기와 주소갖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세종·황금·익산·명당산단 조성 등 2020년 도입미술관 개관, 광양항 활성화에 따른 유입 인구에 대비해 와우, 성황·도이, 목성 등 6개 지구 도시개발 사업 및 프리미엄 아파트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또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늘리기 정책 54개 사업에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결혼·출산·보육 분야와 출생아, 아동, 청년, 은퇴자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시책을 마련해 인구 회복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주 인구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만큼 효과성 있는 시책을 전개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내고장 광양愛 주소갖기' 등 인구지키기에 나선 광양시가 지역 시민단체들과 인구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실무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제철소는 자체 운영하는 무료급식시설의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께 간편식이 들어있는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 무료급식소 중단 따라 간편식 담은 '희망상자' 400개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시 광영동·태인동에 사는 어르신들께 컵밥·라면 등 간편식을 담은 '희망상자' 400개를 전달했다.

이는 광양제철소가 사회공헌활동으로 광영동·태인동 무료급식소를 16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된 데 따른 대체 지원 방안이다.

희망상자에는 컵밥·라면 등 하루 한끼를 기준으로 한달 가량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들어 있다. 무료급식소 일일 이용객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해 400개의 희망상자를 마련했다.

광양제철소는 준비된 400개의 희망상자를 직접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6일에도 운영 중단된 '나눔의 집' 어르신들의 끼니 해결을 위해 라면 상자를 전달했다.

이시우 광양제철소장은 "불편을 감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는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달되는 컵밥과 라면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코로나19가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동반성장 혁신허브' 올해 사업 스타트

서희건설 등 19개 기업·기관 참여

광양의 대표적 혁신 성공사례로 꼽히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사업이 올해도 서희건설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참여기관인 서희건설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 시작을 알리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개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추진위원들과 서희건설 최동익 소장, 강진구 설비기술부 리더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올해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서희건설 등 중소기업 11개사와 행정기관 2개소, 공공기관 6개소

등 총 1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추진위원회의 기관별 역할을 강화하고, 파트너 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권 HRD센터의 참여도 도모한다.

또 포스코 고유의 혁신 활동인 QSS(Quick Six Sigma)와 참여사가 필요로 하는 요구에 맞춰 광양제철소의 해당 전문가를 적극 지원, 동반성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반성장 혁신허브'는 지난 2011년부터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 행정기관의 사무능률 개선 등 혁신성장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추진위원장은 광양시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광양 동반성장 혁신허브' 사업이 지난 12일 서희건설 광양사업장 개별 발대식을 시작으로 19개 기업·기관 등에서 시행된다. (광양시 제공)

지금까지 중소기업, 공공기관, 소상공인 등 총 166개소가 혁신 활동에 참가해 광양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손꼽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전남도 '휴(休) 마이스 육성 사업' 광양 4곳 지정

백운산자연휴양림·봉강햇살촌 등

전남도 '2020 휴(休) 마이스(MICE)시설 육성 사업'에 광양지역 4곳이 지정됐다.

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가 추천한 섬진강골들마을휴양소, 백운산자연휴양림, 메아리창조마을, 봉강햇살촌 등 4곳이 전남도 휴(休) 마이스 시설에 선정됐다.

휴(休) 마이스 지정 대상은 회의·숙박 시설 및 관광·체험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갖춘 유니크 베뉴 중심의 특화 마이스 시설로 한방, 명상, 자연·숲 치유 등 웰니스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매력

도 제고를 위해 주요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야 한다.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는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대상으로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말한다.

이번 휴(休) 마이스 시설로 지정된 4곳은 전남도로부터 마이스 기관·단체의 중·소규모 회의 때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또 인프라 조성, 웰니스 체험 운영, 마이스 전시박람회 및 로드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섬진강골들마을휴양소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숙박시설을 갖추고 천연염색, 도자기체험, 로

?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 등 영문 앞 글자를 따 댄.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산업을 뜻하며, 넓은 개념으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메가 이벤트 등을 포함한 융·복합산업을 뜻한다.

독특한 콘텐츠를 갖춘 경쟁력 있는 마이스 시설이다.

메아리창조마을과 봉강햇살촌도 각각 70명과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펜션, 카라반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생태가 잘 보존된 자연 속에서 전통놀이, 핸드페인팅, 물레체험 등 웰니스 체험이 가능한 특화공간이다.

이화협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은 백운산과 섬진강을 배경으로 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유니크 베뉴로 농촌마을, 숙박, 관광휴양 등 연관 시설들과 시너지를 이루고 있어 마이스산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마이스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마이스 플랫폼의 융·복합적 속성을 잘 살려 시설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 남철희 위원장 연임

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제2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남철희 후보가 당선, 연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약 80%의 지지를 받은 남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노조 사무국장, 2018년부터 제1대 통합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앞으로 임기는 3년 간이다.

남 위원장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문화 조성, 노동가치를 중심으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지역민과도 다양한 소통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화합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